# 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대응 박차

## 사업 구체화 위한 전략 보고회 개최… 선도기업 유치 · 전북 이차전지 인력센터 운영 등 발전방안 논의

전북도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해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특화단지 추진 구체화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담반(TF)인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캠틱, 전북연구원 등이 참석해 이차전지 사업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이 가진 기회와 강점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분석하고,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입지적으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라는 데 뜻을 모았다. 새만금 지역은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적고, 무엇보다 확장 가능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의 신규투자와 증설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최적지로 판단했다.

전북도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해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특화단지 추진 구체화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이어 이차전지 선도기업(앵커기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북도는 유치가 가시화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과 연계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급증하는 이차전지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는 우선 전북테크노파크 내 인력을 활용해 임시조직 형태로 '전북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운영, 행·재정적 절차를 거쳐 정식 조직을 설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전략 보고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보완해 최종 계획을 수립하고, 2월말까지 산업부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 지역은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RE100 실현과 전후방 산업 연계가 가능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유치, 연구개발, 인재양성 방안 등을 준비해 전북이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 도내 8개 시 · 군서 출하 시작… 임업인 소득 증가 예상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骨利水)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 출하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청정지역인 남원, 완주, 진안, 장수 등 8개 시·군의 1,240ha, 1만8,000여 본의 나무에서 본격적으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산림자원법, 또는 국유림법에 따라 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취목의 규격에 따른 적정 구멍수 및 채취호스, 수액 집수통 관리 등 관리요령 지침을 채취 임가에 통보·지도하고 있다.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에 따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액의 채취 일자·제조일·유통기한을 용기에 표기토록 하고 식품 위생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유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열리지 못했던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등 지역 행사가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어서 임업인의 수익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고로쇠 수액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액은 뒤끝이 달콤하고 냄새가 없으며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아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이 풍부해 뼈와 피부에 좋고 당분인 자당도 물보다 40배 가량 많아 신경통과 위장병, 관절염, 습진,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쇠 수액 유통가격은 예년과 같이 9리터(1.5리터 6병) 기준 3만원, 18리터(1.5리터 12병) 기준 6만원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시군, 2024년 국가예산 확보 공조 강화

## 도-시군 기획부서, 국가예산 확보 대응 간담회 개최… 예산 확보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계획 설명

전북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선식 정책기획관과 도내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기획부서 국가예산 확보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도와 시군이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당면 현안 해결의 해법을 찾고, 도-시군 간 공조를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도-시군 국가예산 확보 대응 계획과 각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신규사업 설명, 주요 신규사업들에 대한 도 실무부서 보완의견 제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계획 설명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도와 14개 시군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계속사업 조정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공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과 엄격한 재정지출관리가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은 단계별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 중점 사업별 부처 설득 논리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예산편성 순기 보다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발굴된 신규사업들이 각 부처 담당자부터 눈에 익히도록 2~3월 중 선제적 설명 활동을 추진하고 논리를 보강해 부처단계부터 전략적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한 권역별 시·군 특례 발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권역별 성장산업, 새만금 연계 발전, 경제 활성화 촉진 특례 발굴 등 도-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도, 해빙기 맞아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실시

## 4월 2일까지, 공무원 · 전문가 등 참여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한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도가 비탈면의 낙석, 산사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반 약화로 시설물의 붕괴, 전도, 낙석 등이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시설·급경사지·옹벽·절토사면·도로 및 하천 공사현장·문화재 등 7개 분야 3,500여 개소다. 점검기간은 15일부터 4월 2일까지 47일간이다.

도는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각 분야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반상태 △기초부의 균열 △사면의 손상 여부 △옹벽의 균열·누수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성 작성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 △문화재 건축물 지반 침하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 대상 3,500여 개소 중 취약 지역의 교차 점검을 3월 중행안부, 도·시군,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자치경찰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국제행사 · 지역축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다할 것"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 14일 '국제행사 등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1호 업무지휘를 전북경찰청에 하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등 국제행사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지역축제 등에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업무지휘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행사 기간 중 인파 관리,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다중운집 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주최자 등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번 업무지휘도 관계기관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형규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업무지휘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와 지역 축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일상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진행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참여는 전북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대학, 학회, 협회, 경제(직능)단체에서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전북도 누리집(www.jeonbuk.go.kr)에서 서식을 받아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행정안전부 jbj1125@korea.kr(044-205-3936) 또는 전라북도 mj59@korea.kr (063-280-4143))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검토, 소관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 100만원, 우수 2명에 각 50만 원, 장려 17명에 각 10만 원 상당의 부상품이 지급된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면접 담당교수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음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아침마당, MBC TV, JTV, TBN등 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워 빛, 빛, 빛" "스피치 스타일"등
• 스피치지도사, 평생교육사, 사상강사도사등 자격증 소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